

의복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인상에 미치는 영향

고 애 란 · 강 혜 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생활학과

Effect of Body Exposure and Color of Suit on the Impression of Modesty

AeRan Koh and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2. 3. 8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1) the effect of body exposure and color of a woman's suit on the perception of modesty, and 2) the effect of perceiver's sex and age on impression formed by the function of clothing variables.

The instrument of this study consisted of a response scale and stimuli. Thirteen items of 7-point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were developed to measure the perceiver's impression on wearer's modesty. Stimuli were color pictures of a model wearing one of 8 types of suit constructed by a $2 \times 2 \times 2$ factorial design. The manipulation of each level of the clothing variables were: color of the suit by black and red, leg exposure by varying skirt lengths to a Chanel-line and mini skirt, and neck exposure by shirt collar blouse and scarf. Two models, representing typical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were selected to eliminate model effect. The sample include 384 subjects, consisting of 4 groups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middle aged men and women. Eight experimental group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eight stimuli based on between-subject design. One half of each group responded to model 1 and the other half to model 2 of same stimulus.

Responses to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were factor analyzed (pc model, Varimax rotation) to identify factors constructing impression of modesty. Two factors emerged regardless of subgroups: Elegance and Extroversion factor. The first factor was found to be dominant, accounting for 60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The other accounted for just 11 percent.

Multidimensional ANOVA (5-way, 3-way) was conducted to test the effect of the clothing variables against two factors identified from the factor analysis. Leg exposure was the most powerful variable affecting the impression of Elegance and Extroversion factor for all perceiver subgroups. Neck exposure had primary effect on the impression of Elegance, whereas it

partially influenced that of Extroversion. Color of suit had only partial effect on the impression of Extroversion. Hypothesis I was partially supported from the findings above.

The effect of perceiver's age and sex on impression by the function of clothing variables was tested by comparing the result between four subgroups. In forming an impression of the wearer's modesty, male college students were least affected by the manipulation of clothing variables, while middle aged males were affected most. In the female groups, there was no age difference and they fell between the male groups in the degree to which they were affected. Hypothesis II was supported only by age difference in two male groups, and by sex difference in two student groups.

I. 서 론

의복은 개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시 상징적 의미를 지니므로써, 낯선사람에 대한 첫인상 형성 상황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한다. 인상형성시의 의복의 영향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실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상형성시 영향을 미치는 의복의 측면과 그러한 측면에 의해서 추측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을 규명하거나, 직장면접 상황에서의 의복의 적절성과 관련지어 직업특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의복의 측면은 디자인, 색, 정숙함등의 여러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의복의 정숙성은 의복착용동기에 대한 학설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일찍부터 논의되어왔다¹⁾.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몸을 가리는 복장의 전통과 함께 정숙성이 중시되어 왔으나 최근들어 개방된 사회체계 속에서 급속한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변화해가는 여자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수용기준을 밝히는 연구는 의의있다고 하겠다.

한편, 국내에서 다루어지는 의복정숙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선호와 태도에 관한 것이며, 인상형성 연구방법으로 접근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성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의복의 도발성에 대해 귀인이론으로 접근한 외국의 연구에서도 의복정숙성의 구성요인들을 실험적으로 조작·적용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숙성 구성요인들을 조작하여 실제 착용한 모습에 대한 다양한 연령층 남녀의 인상형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안에서의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의복정숙성의 개념과 수용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현실적인 인상형성상황으로 조작·연구하며 실제상황에 직접 적용가능한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1) 착용자의 의복에서의 정숙성 정도가 착용자의 정숙성에 대한 관찰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및 2) 의복에 의한 인상형성시 관련변인인 관찰자의 성·연령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는 대인지각 이론 및 의복행동 연구로서 인상형성 연구와 의복정숙성 연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1. 대인지각 이론

대인지각만이 갖는 특징으로서 지각자는 지각대상자를 원인행위자로 간주하여 행동으로부터 지각대상자의 안정된 기질을 추론하며 직접 알 수 없는 속성에 대해서는 자기참조를 통해 추측한다. 또한, 지각자와 지각대상자는 상호 영향을 받는다²⁾.

대인지각 이론 중 본 논문과 관계되는 인상형성과정 이론 및 대인지각의 과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상형성과정 이론

형태주의적 접근 : 이 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Asch³⁾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지각대상자를 묘사하는 자극특성들 중 인상형성에 중요 역할을 하는 중심특성과 이의 영향을 받는 주변특성이 있으며, 그러나 모든 자극특성들은 맥락 즉, 다른 특성과의 관련성에 의해서 최종적인 인상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인상형성시 개인은 각각의 정보들을 조직해서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형태(Gestalt)로 지각하며, 인상형성의 인지과정을 거쳐 다

른 특성에 대한 반응추론을 한다고 설명한다⁴⁾.

· **행동주의적 접근** : 이 이론에서는 인상형성과정에서 지각자에게 주어지는 자극특성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일정한 척도치가 평균모형 또는 누가모형에 의해 기계적으로 통합되어 최종 인상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⁵⁾.

이상의 두 접근은 이론상의 대립을 보이고 있으나 형태주의적 접근에서는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룬 반면 행동주의적 접근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적 차원의 판단과정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2) 대인지각의 과정

Schneider 등⁷⁾은 대인지각의 과정을 주목, 즉각적 판단, 원인귀속, 특성추론, 인상형성, 행동예측의 6단계의 연속적 과정으로 보았으며, 대인지각에 사용되는 비언어적 단서를 동적단서와 정적단서로 분류하였다. 의복과 외모는 신체적 특징과 같은 정적단서로서 즉각적 판단단계에서의 자극단서로 사용된다. 또한, 지각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각대상자에 대한 특성추론에 영향을 미친다.

인상형성시 지각자는 모든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으며 여러 자극단서중 전경 (figure)으로 부각되어 지각자의 주의를 끄는 단서는 특출성 (salience)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특출한 자극단서는 지각자의 주의를 강하게 끌기 때문에 행동의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귀인된다⁷⁾.

2. 의복행동 연구

1) 의복과 인상형성

인상형성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각자, 지각대상자 및 상황으로 분류된다. 의복의 인상형성 연구는 인상형성시 지각대상자의 의복이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이러한 변인들을 조작·연구하는 다양한 관점의 실험 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 관계되는 의복유형 또는 형태, 성적매력성, 색 및 지각자 변인의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복유형 또는 형태 : 4가지 유형의 여자의복에 대한 인상을 다룬 Sweat과 Zentner⁸⁾ 및 Paek⁹⁾의 연구에 따르면 각기 다른 유형의 의복착용자는 그 의복의 이미지에 관련된 인상을 받았으며, Bell¹⁰⁾의 연구에서 남자의복의 유형은 착용자의 특성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주현¹¹⁾에 따르면 suit, dress, blouse pants로 분류된

의복유형이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하의길이, 칼라형태, 색상등의 의복요소 중에서는 하의길이 5가지 인상차원에 중심특성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Gibbins와 Coney¹²⁾는 스커트 길이, 폭, T-셔츠 형태를 요인설계로 연구한 결과, 허벅지 길이의 스커트는 짧고 외향적인 것으로, 목이 깊게 파인 T-셔츠는 외향적이고 성적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의복의 성적 매력성 : Mathes와 Kempfer¹³⁾에 따르면 지각자들은 신체노출이 많은 의복의 착용이 착용자의 개방적인 상태도와 행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Mazelan¹⁴⁾의 연구에서는 낮은 목둘레선, 짧은 스커트, 비치거나 몸에 꼭끼는 의복이 성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Lewis와 Johnson¹⁵⁾은 성범죄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원인귀속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의복을 성적흥미 유발정도에 따라 3수준으로 조작·연구한 결과 가장 성적흥미를 유발하는 의복(비치는 망사웃)이 미니스커트 또는 진바지차림보다 피해자 책임으로 원인귀속 되었으며 지각자의 성은 의복과 상호작용을 나타내어 남자 지각자는 피해자가 가장 성적흥미를 유발하는 의복착용시 피해자 책임으로 강하게 원인귀속 하였다.

의복의 색 : 의복요소 중 색은 대인지각에 있어 의복착용자의 표면효과로서 지각되며 진출-후퇴, 팽창-수축, 한-난색에 관한 연상 및 감정작용등의 심리적 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¹⁶⁾. 색에 의한 심리적 연상으로서, 검정색은 엄격, 소극적, 어두움, 불길함을 표현하고 빨간색은 열정, 흥분, 격렬, 활동성의 느낌을 주며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특징이 있다¹⁷⁾.

Mahannah¹⁸⁾는 의복색과 착용자 머리색의 음양 (yin-yang)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검정머리의 착용자가 빨간색 의복을 착용하였을때 가장 남성적이며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특정색에서의 명도, 채도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 짙은 색의 의복은 관리직 지원 여성의 능력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며, 선명한 색보다 낮은 채도의 의복이 착용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한편, 강혜원 등²⁰⁾의 한복의 선을 응용한 디자인 및 한복배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한복의 현대적 배색은 부분적인 영향을 나타내어 저고리색을 통제한 상태에서 치마색과의 보색조화가 유사색 조화보다 더 현대적으로 지각

되었다.

지각자변인의 영향 :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시 지각자는 동일한 자극물내에서 자신이 가치를 두는 단서에 대한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를 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Littrell과 Berger²¹⁾는 지각자의 직업이 의복에 의한 인상형성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상담원이 경찰에 비해 적은 수의 단서를 사용하며 외모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 평가하는 반면 경찰은 단정치 못한 차림의 지각대상자에 대해 좀더 부정적 태도를 보였음을 발견하였다.

지각자의 의복태도는 인상형성시 의복 착용자에 대한 평가기준 또는 의복단서에 대한 민감성등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 Miller²²⁾등의 연구에서 타인의 외모에 민감한 사람은 신체외모 단서를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 단서로 사용하였으며, Paek⁹⁾과 Bell¹⁰⁾은 지각자의 의복관심에 따라 특정 의복유형에 대한 인상 또는 선호를 달리함을 발견하였다.

2) 의복 정숙성 연구

의복 정숙성은 도덕·예의와 관련된 사회적 태도로서, 신체의 노출이나 강조, 색·질감·장식의 정도, 착용상황에의 적절함과 관계된다. 그러나 정숙성의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개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의복정숙성 태도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대학생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23,24,25)}들에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더 보수적이었으며, 연령별 차이를 다룬 연구에서는^{26,27)} 여자와 남자 모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정숙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내적 특성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정치적 가치관 또는 종교적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신체노출·디자인 등에 의한 정숙성에 보수적 태도를 지니며^{28,29)} 여성역할에 보수적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의복 정숙성을 좀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가설 및 용어정의

본 연구는 연구목적의 실증적 규명을 위해 실험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연구의 가설 및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가설

가설 I : 수트(suit) 차림에서의 신체노출과 색의 조 작은 의복착용자의 정숙성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 : 관찰자의 특성(성·연령)은 의복 정숙성에 의한 인상형성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가적 관심 : 의복착용자에 대한 연상내용.

2) 용어정의

정숙성 인상 : 자극물속의 의복착용자의 정숙성 관련 특성에 대한 인상.

정숙성 관련 특성 평가 : 정숙성에 관련된 개인의 태도·행동 및 외모평가적 특성(trait)의 측정정도, 양극형용사쌍으로 구성됨.

의복 정숙성 : 수트에서의 신체노출과 색의 조작에 의한 의복의 느낌.

정숙성 조작변인 : 수트 차림에서의 다음과 같은 신체노출과 색의 조작을 포함.

수트의 색 : 수준 1 : 검정

수준 2 : 빨강

다리노출 : 스커트길이에 의한 다리 노출상태

수준 1 : 무릎길이 스커트(다리노출 적을때)

수준 2 : 미니 스커트(다리노출 많을때)

목노출 : 수트안에 반쳐입는 옷에 의한 목노출 상태.

수준 1 : 블라우스(목노출 적을때)

수준 2 : 스카프(목노출 많을때)

자극물 번호 : 수트차림의 정숙성 조작변인에 따라 분석의 편의상 붙인 자극물의 일련번호. 각 자극물 번호에 따른 조작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음.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외모자극단서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인상을 측정하는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 자극물

본 연구의 자극물은 수트차림의 여자 모습의 칼라사진(5×7in) 총 16가지이다. 이는, 2³-요인설계에 따라 3가지 의복 정숙성 조작 변인을 각기 2수준으로 조작한 8가지 수트를 2명의 모델이 번갈아 착용한 것이다. 각 자극물 번호에 따른 정숙성 조작내용은 <표 1>과 같다.

정숙성 조작변인의 선정은 1) 신체노출은 사전 설문조사(대학생·중년층 38명) 결과, 의복정숙성 구성요소로서 가장 높게 지적되었으며 2) 의복의 색은 가장 표현력

〈표 1〉 각 자극물의 정숙성 조작내용

자극물 번호	정숙성 조작 내용					
	수트의 색		다리노출		목노출	
	검정	빨강	무릎길이 스커트	미 니 스커트	블라우스	스카프
A ₁ B ₁ C ₁	√		√		√	
A ₁ B ₂ C ₁	√			√	√	
A ₁ B ₁ C ₂	√		√			√
A ₁ B ₂ C ₂	√			√		√
A ₂ B ₁ C ₁		√	√		√	
A ₂ B ₂ C ₁		√		√	√	
A ₂ B ₁ C ₂		√	√			√
A ₂ B ₂ C ₂		√		√		√

A : 수트의 색
 B : 다리노출 스커트길이
 C : 목노출 받쳐입는 옷
 1, 2 : 각 변인의 수준을 나타냄.

이 큰 의복요소이므로 본 연구의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모델 선정 및 자극물 제작 : 자극물속의 의복착용자의 선정기준은 서울시 거주 20대초반 여성의 표준체형범위 (신장 158.20 cm <분산 5.02>, 체중 52.64 kg <분산 6.02>)의 체격조건을 나타내며, 서로 유사한 인상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였다. 판단 집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2명의 모델에 대해 예비실험에서 다리노출의 영향을 고려한 인상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델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났으므로 2명의 모델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실험의복 즉, 수트는 유행의 영향이 적은 기본적인 스타일을 사용하였으며, 세부디자인(어깨형태, 깃넓이)은 89년 가을유행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자극물 제작시 모델의 자세, 얼굴표정, 머리형태 및 배경을 일정하게 통제하여 가외변인의 영향을 제거하였다.

실험디자인 : 피험자間 2³-요인설계 (between subject 2³-full factorial design)로서, 성·연령별에 따른 관찰자가 각기 12명씩 포함된 8개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각 자극물 번호에 한 집단씩 배정하였다. 이 때, 2명의 모델에 성·연령별 관찰자가 각기 6명씩 배정되도록 하였다.

2) 설문내용

정숙성 관련 특성평가 : ‘20대 여자의 외출하는 모습’이라고 제시된 자극물에 대한 관찰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는 7점의 의미미분척도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즉, 사전 연구단계에서 영영 및 영한사전에 제시된 modest의 의미를 기준으로 21문항을 선행연구로부터 선택 또는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 설명력이 부족하거나 판단집단으로 부터 부적절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 또는 내용수정하여 13문항을 최종 척도로 사용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문항 : 관찰자가 각 자극물에 대하여 형성한 인상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복착용자를 보았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쓰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총 384명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및 중년층(40~49세) 각 96명씩이었다. 자료수집은 임의표집에 의하였으며 피험자의 설문응답 상황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각 피험자 집단별 응답 장소와 응답시기(오후시간대)를 통제하였다. 자료수집 장소는 대학생은 종합대학 각 3개교, 중년층 남자는 대·중

소기업 5곳, 중년층 여자는 강남·강북 각 3지역의 아파트 또는 주택이었으며, 1989년 12월부터 90년 1월 사이에 수집되었다.

자료분석은 요인분석 및 변량분석에 의하였다.

IV. 결 과

1. 정숙성 인상의 요인도출

가설 검증에 앞서 관찰자의 정숙성 관련특성평가에 대한 응답을 전체 관찰자 및 성·연령에 따른 4개 관찰자 집단별로 요인 분석하였다.

1) 요인의 도출

분석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모형 및 직각(Varimax)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표 2>와 같이 관찰자 집단에 관계없이 2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I은 설명력 60.9%를 나타내며 '품위있는-품위없는', '고상한-천박한', '단정한-단정치 못한' 등의 외모 평가적 특성과 '정숙한-정숙치 못한', '예의바른-예의바르지 못한', '신중한-경박한' 등의 태도·행동적 특성이 함께 묶였으며 품위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II는 외향성 요인으로서 '개방적인-보수적인', '외향적인-내향적인', '충동적인-자제하는', '대담한-소심한'의 행동적 특성과 '주의를 끄는-평범한', '야한-야하지 않은'의 외모 평가적 특성이 함께 분류되었으며 10.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차분한-들뜬'의 형용사쌍은 특정 관찰자 집단에서 두 요인에 모두 높은 부하량을 나타내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요인점수의 계산

요인점수는 전체관찰자의 응답의 분석결과에 따라 회귀모형(regression model) 점수계산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요인점수에 따른 결과해석은, 점수가 높을수록 품위요인에서는 보다 품위있고, 단정하고, 고상하며, 정숙하고, 예의바르고, 신중한 사람으로, 외향성 요인에서는 보다 외향적·개방적·충동적이고 대담하며 주의를 끌고 야한 외모의 사람으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2. 가설 검증

가설 I·II의 검증을 위하여 정숙성 인상의 두 요인에 대해 의복 정숙성 조작변인과 관찰자의 성·연령으로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즉, 1차 분석으로서 의복변인과 관찰자 변인을 모두 포함한 오원 변량분석(5-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관찰자의 성·연령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의복변인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차 분석으로서 피험자 집단별로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삼원 변량분석 결과 나타난 의복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도식(graph)에 의한 해석과 함께 3차 분석인 이원 변량분석 결과에 따라 해석하였다. 가설 II 즉, 관찰자의 성과 연령에 의한 영향은 각 집단별 변량분석 결과로부터 의복변인의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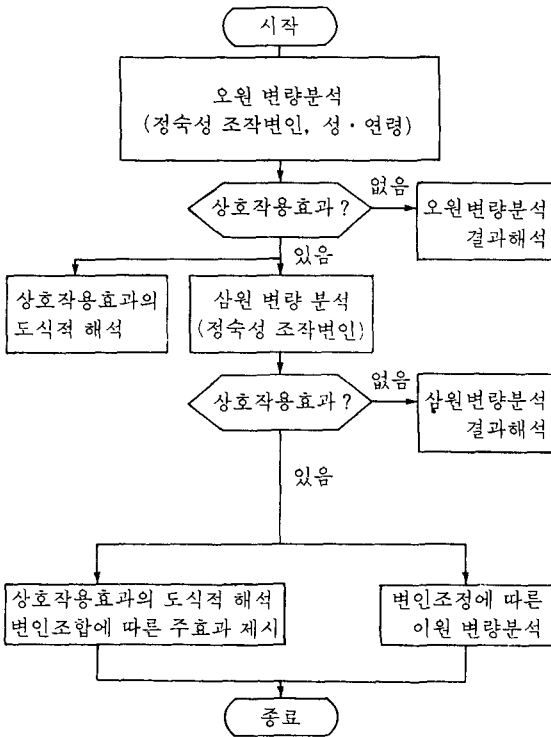
전체 관찰자에 대한 오원 변량분석 결과, 의복변인과 관찰자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즉, 품위 요인에 대한 관

<표 2> 정숙성 인상의 요인^a

요인 I : 품위		요인 II : 외향성	
형용사쌍	요인부하량	형용사쌍	요인부하량
품위있는 - 품위없는	.87	외향적인 - 내향적인	.80
고 상 한 - 천 박 한	.86	주의를끄는 - 평 범 한	.78
정 숙 한 - 정숙치못한	.86	개방적인 - 보수적인	.77
단 정 한 - 단정치못한	.76	충동적인 - 자제하는	.75
예의바른 - 예의바르지못한	.75	소 심 한 - 대 담 한	-.75
신 중 한 - 경 박 한	.71	야 한 - 야하지않은	.74
총변량에 따른 비율 :	60.9%	총변량에 대한 비율 :	10.4%
고유근 :	7.31	고유근 :	1.25

a : 자극물에 대한 전체관찰자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주성분 분석 모형(principle component model)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였음.



[그림 1] 가설의 통계적 검증과정
전체관찰자에 대한 분석결과로부터 변인간의 상호 작용효과 제거를 위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

찰자의 연령, 수트의 색 및 다리노출의 상호작용효과 ($F=4.57, p<.05$)와 외향성 요인에 대한 관찰자의 성, 다리노출 및 목노출의 상호작용효과 ($F=7.66, p<.01$)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작용효과 제거를 위해 2차 분석으로서 관찰자의 성·연령에 따른 네 집단별로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남자대학생 집단에서의 결과

<표 3>에 의하면 다리노출 변인은 품위요인과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남자대학생이 미니스커트 차림에 대해 품위없고 외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목노출 변인은 품위요인에 대해서만 작은 영향을 미쳤으며 품위요인의 인상에 다리노출 및 목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경향은 [그림 2]와 같이 무릎길이 스커트 차림에서는 목노출 변인이 품위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나 ($F=12.68, p<.001$), 미니스커트 차림에서는 목노출 변인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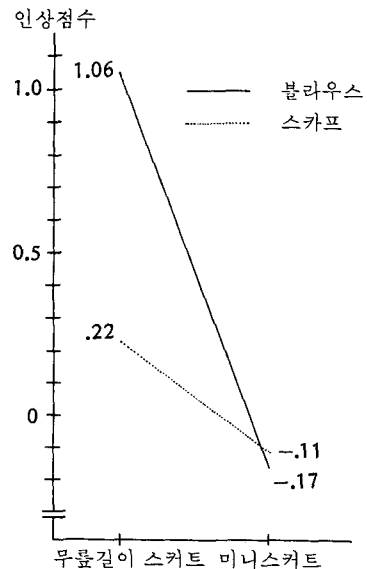
<표 3> 정숙성 인상요인에 대한 정숙성 조작변인의 영향 : 남자대학생

정숙성 조작변인의 각 수준별 인상점수 평균값 ^a				
요인 조작수준 조작변인	품위요인		외향성요인	
	수준 1	수준 2	수준 1	수준 2
수트의 색	.24	.27	.00	.30
다리 노출	.64	-.14	-.15	.56
목 노출	.47	.06	.06	.32

변량 분석결과 ^b		
Sources	품위요인	외향성요인
A(수트의 색)		
B(다리 노출)	15.45***	12.06***
C(목 노출)	4.08*	
B×C	5.26*	

* $p<.05$ ** $p<.001$

a : 점수가 높을수록 품위있는, 외향적인 것을 의미함.
b :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수준 1 : 검정색, 무릎길이 스커트, 블라우스 조작을 의미함.
수준 2 : 빨간색, 미니스커트, 스카프조작을 의미함.



[그림 2] 품위 요인의 인상에 대한 다리노출 및 목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 남자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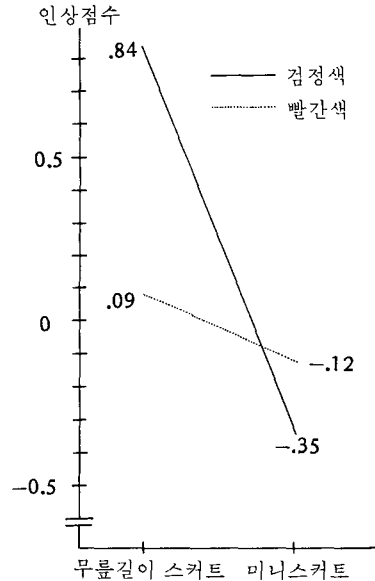
이는, 품위요인의 인상에 다리노출이 좀더 강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미니스커트 차림에서는 목노출 정도에 관계없이 품위없다는 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2) 중년층 남자집단에서의 결과

중년층 남자집단의 삼원 변량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3가지 의복변인 모두 품위요인과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한편, 각 요인에 대해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품위요인에 대한 수트의 색과 다리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3)과 같이 무릎길이 스커트 차림에서는 빨간색이 검정색보다 품위없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F=8.89, p<.01) 미니스커트 차림에서는 검정색이 좀더 품위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외향성 요인에 대한 수트의 색과 목노출 변인간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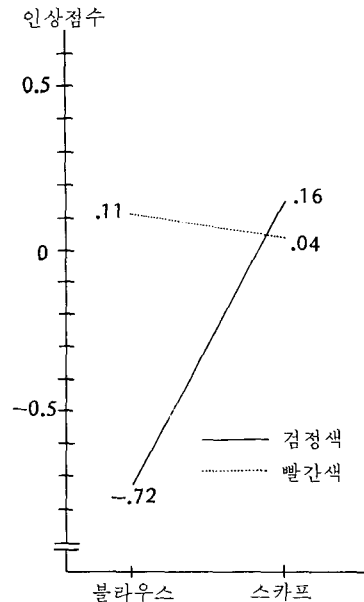
(그림 3) 품위요인의 인상에 대한 수트의 색과 다리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 중년층 남자

<표 4> 정숙성 인상요인에 대한 정숙성 조작변인의 영향 : 중년층 남자

정숙성 조작변인의 각 수준별 인상점수 평균값 ^a				
요인	품위요인		외향성요인	
	수준 1	수준 2	수준 1	수준 2
수트의 색	.26	-.02	-.31	.10
다리 노출	.47	-.24	-.46	.27
목 노출	.33	-.10	-.28	.08
변량분석결과 ^b				
Sources	요인	품위요인	외향성요인	
A(수트의 색)		4.73*	6.48*	
B(다리 노출)		21.87***	20.17***	
C(목 노출)		11.46***	5.33*	
A×B		14.47***		
A×C			7.82**	

*p<.05 **p<.01 ***p<.001

- a : 점수가 높을수록 품위있는, 외향적일 것을 의미함.
- b :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 수준 1 : 검정색, 무릎길이 스커트, 블라우스 조작을 의미함.
- 수준 2 : 빨간색, 미니스커트, 스카프조작을 의미함.



(그림 4)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대한 수트의 색과 목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 중년층 남자

호작용 효과는 (그림 4)와 같다. 즉, 블라우스 차림인 경우에만 수트의 색이 영향을 주어 빨간색이 검정색보다 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F=8.32, p<.01).

<표 5> 정숙성 인상요인에 대한 정숙성 조작변인의 영향 : 여자대학생

정숙성 조작변인의 각 수준별 인상점수 평균값 ^a				
요인 조작수준 조작변인	품위요인		외향성요인	
	수준 1	수준 2	수준 1	수준 2
수트의 색	.27	-.42	.45	.19
다리 노출	.17	-.88	.61	.35
목 노출	.13	-.57	.32	.05

변량분석결과 ^b			
Sources	요인	품위요인	외향성요인
A(수트의 색)			12.58***
B(다리 노출)		32.38***	27.40***
C(목 노출)		6.31*	4.59*
B×C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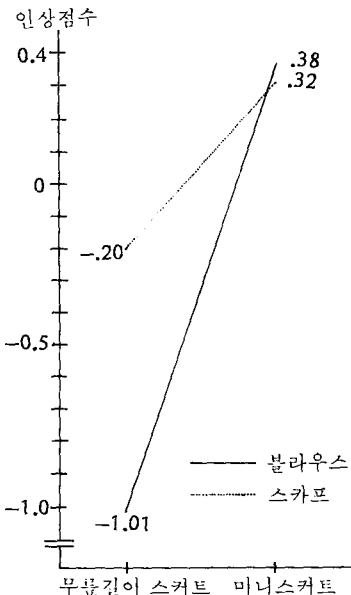
*p<.05 **p<.001

a : 점수가 높을수록 품위있는, 외향적인 것을 의미함.

b :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수준 1 : 검정색, 무릎길이 스커트, 블라우스 조작을 의미함.

수준 2 : 빨간색, 미니스커트, 스카프조작을 의미함.



[그림 5]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대한 다리노출 및 목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 여자대학생

3) 여자대학생 집단에서의 결과

<표 5>는 여대생 집단에서의 의복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품위요인의 인상에는 다리노출·목노출 변인이 영향을 주었으며, 외향성 요인에는 세가지 의복변인의 영향과 함께 신체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5>과 같이 무릎길이 스커트차림에서는 스카프 차림일때 좀더 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으나 (F=7.55, p<.01), 미니스커트 차림에서는 목노출 변인이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다리노출 변인이 좀더 강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미니스커트 차림에서는 목노출 정도에 관계없이 외향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4) 중년층 여자집단에서의 결과

중년층 여자집단에서의 품위요인과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대한 의복변인의 영향은 <표 6>, (그림 6)과 같이

<표 6> 정숙성 인상요인에 대한 정숙성 조작변인의 영향 : 중년층 여자

정숙성 조작변인의 각 수준별 인상점수 평균값 ^a				
요인 조작수준 조작변인	품위요인		외향성요인	
	수준 1	수준 2	수준 1	수준 2
수트의 색	-.01	-.04	-.14	.24
다리 노출	.31	-.36	-.34	.45
목 노출	.34	-.39	-.11	.21

변량분석결과 ^b			
Sources	요인	품위요인	외향성요인
A(수트의 색)			7.80**
B(다리 노출)		16.26***	29.80***
C(목 노출)		19.21***	5.84*
B×C			8.6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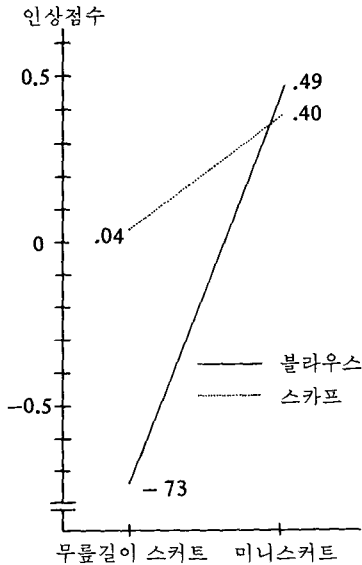
a : 점수가 높을수록 품위있는, 외향적일 것을 의미함.

b :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수준 1 : 검정색, 무릎길이 스커트, 블라우스 조작을 의미함.

수준 2 : 빨간색, 미니스커트, 스카프조작을 의미함.

여대생 집단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품위 요인의 인상에는 다리노출과 목노출 변인이 영향을 주었으며, 외향성 요인에는 세가지 의복변인의 주효과와 함께 다리노출 및 목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대생 집단과는 달리 품위요인의 인상에 대한 영향력은 다리노출 변인보다는 목노출 변인의 영향이 좀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대한 다리노출 및 목노출 변인간의 상호작용효과 : 중년층 여자

관찰자 집단별로 의복변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7>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속성 인

상에 대한 의복변인의 영향과 관찰자의 성·연령에 따른 차이에 대해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복변인의 영향 : 세가지 의복변인 중 다리노출 변인이 정속성 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모든 관찰자 집단에서 품위 및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노출 변인과 수트의 색은 관찰자 집단과 인상의 요인에 따라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목노출 변인은 중년층 남자집단에서의 품위 및 외향성 요인에, 두 여자집단에서의 품위 요인에는 주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남자대학생 집단에서의 품위요인 및 두 여자집단에서의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는 다리노출 변인이 강력한 영향을 나타냄에 따라 부분적인 영향만을 나타내었다.

수트의 색은 중년층 남자집단을 제외하고는 주로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남자대학생 집단에서는 정속성 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가설 I 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관찰자의 성·연령에 의한 영향 : 연령별 비교에서는, 남자집단에서는 중년층이 대학생보다 의복변인의 영향을 좀더 받았으나, 여자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대학생 집단에서는 여자가 좀더 영향을 받은 반면, 중년층 집단에서는 남자가 의복변인의 영향을 좀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II는 남자집단에서의 연령차이와 대학생 집단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표 7> 정속성 조작변인의 영향에 대한 가설검증결과의 요약

관찰자 요인	남 자				여 자			
	대 학 생		중 년 층		대 학 생		중 년 층	
조작변인	품 위	외향성	품 위	외향성	품 위	외향성	품 위	외향성
수트의 색			△	△		△		△
다리노출	***	***	***	***	***	***	***	***
목노출	△		***	*	*	△	***	△

*p < .05 수준에서 의미있음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음

△ 다리노출 또는 목노출이 적을 경우에만 영향미침

〈표 8〉 의복착용자에 대한 자유기술식 응답의 내용분석 결과

자극물 번호	머리에 떠오르는 것	관찰자 응답수 ^a			
		남 자		여 자	
		대학생	중년층	대학생	중년층
A ₁ B ₁ C ₁	정숙·단정·차분·얹진·순수·깨끗함	8	6	5	8
	형식적·경직됨·딱딱함	1	·	4	2
	안정된 사고·질서있는 생활·보수적 가정환경	1	2	·	1
	장례식·어둡다·침울해보임·노숙해보임	1	2	2	1
	비현대적·자유당시절복장	·	1	2	·
A ₁ B ₂ C ₁	단정·차분·깔끔	4	2	1	6
	대담·자극적·경망스러움·점잖지않음	2	4	2	2
	불편·어색·인상과 옷의 부조화	3	2	6	1
	발랄·사교적·활동적	2	4	1	4
	상·하의 디자인 부조화	2	·	2	·
A ₁ B ₁ C ₂	대담·충동적·불안정·야하다	3	1	5	5
	단정·차분·정숙·평범·품위	3	5	3	2
	자신감·적극적·이지적	2	3	·	1
	개방과 보수의 양면	1	1	1	3
	인상과 옷의 부조화	2	·	2	1
	장례식·엄숙한 의식	1	2	1	·
A ₁ B ₂ C ₂	개방·대담·선정적·경망·품위없음	4	5	3	4
	불편·어색함·인상과 옷의 부조화	2	2	6	1
	시선을 끌고자 함	2	2	1	2
	단정·차분	2	·	·	2
	범죄사건 유발가능성	·	3	·	1
	자신감·사교적	·	·	2	2
A ₂ B ₁ C ₁	평범·단정·깔끔·정숙	6	1	7	6
	선정적·진취적·도전적·개방적·눈에 띄	3	3	2	·
	인상과 옷의 부조화	2	3	·	1
	직장여성	1	2	1	2
	단조로움·딱딱함·실용적	·	2	1	2
A ₂ B ₂ C ₁	선동·외설적·욕구불만·개방·불안·품위없음	4	3	3	2
	불편·어색함·인상과 옷의 부조화	2	3	3	4
	개방과 보수의 양면	1	4	1	2
	활동적 여성·젊고 발랄한 20대	·	3	·	2
	건방짐·자기중심적	1	·	2	1
	상·하의 디자인 부조화	·	·	2	·
A ₂ B ₁ C ₂	선정적·개방적·천박·과감·자기과시	3	4	2	4
	단정·차분·순진·평범	3	1	4	3
	촌스러움·개성없음·유행을 따르지 않음	1	4	2	3
	인상과 옷의 부조화	2	2	2	2
	직장여성·안내원	1	5	1	1
A ₂ B ₂ C ₂	대담·개방·선정적·천박·불안정	4	3	4	5
	활동적·강하다·자신감	3	2	1	2
	시선끌고자 함·자기과시	3	2	1	1
	인상과 옷의 부조화·부담스러움	2	2	1	2
	범죄사건 유발가능성	·	2	2	1
	상·하의 디자인의 부조화	·	·	2	·

a : 각 자극물마다 관찰자집단당 12명이나 2개 이상의 응답·무응답자도 있음.

3. 부가적 관심의 규명

〈표 8〉은 의복착용자에 대한 연상내용 즉, 의복착용자에 대한 관찰자의 자유기술식 응답을 내용분석한 것이다.

관찰자에 의해서 주로 언급된 내용은 정숙성 관련 특성으로서, 동일한 자극물에 대해 단정함, 차분함, 정숙함 등의 긍정적 평가와 개방적, 선정적, 야함등의 평가가 함께 나타났다. 응답빈도는 신체노출이 많고 또한 빨간색일때 부정적인 평가가 좀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검정색의 노출이 적은 수트(A₁B₁C₁)인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만이, 미니스커트의 빨간색 수트(A₂B₂C₂, A₂B₂C₁)의 경우에는 부정적 평가만이 나타났다. 또한 모든 자극물을 통해 전반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외모에 대한 평가로서 '인상과 옷의 부조화', '상·하의 디자인의 부조화', '행동에 불편함'등이다. '상·하의 디자인 부조화'는 특히 미니스커트와 블라우스차림의 수트에 대해 여대생 집단으로부터 주로 지적된 내용이며 또한, 미니스커트 차림은 관찰자로부터 불편함, 어색함등의 평가를 이끌어 내었다. 적은수의 관찰자이기는 하나 의복착용 모습으로부터 착용자의 의도를 추측하여 '시선을 끌고자 함', '자기과시'등으로 평가하거나, '직장여성', '안내원'등의 역할도식(role schema) 또는 '장래식', '범죄사건 유발 가능성'등의 사건도식(event schema)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각 자극물별로 특징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무릎길이 스커트와 블라우스 차림의 검정색 수트(A₁B₁C₁)는 정숙성 관련 특성에서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생활방식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된 반면 주로 여대생 집단에서 지적된 것으로서, 비현대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무릎길이 스커트의 검정색 수트는 검정색의 이미지에 의해서 장래식 또는 엄숙한 의식을 연상시켰다. 한편, 미니스커트 차림은 정숙성 관련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발달함·활동적임·자신감 있음 등의 긍정적인 특성들도 이끌어 내었다.

V. 논 의

연구문제로 설정되었던 가설과 부가적 관심을 검증한 결과에 대해 문헌조사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숙성 관련특성에 대한 인상의 구성: 의미미분 척도

에 대한 관찰자 응답의 요인분석 결과, 관찰자 집단에 관계없이 품위요인과 외향성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품위요인은 전체변량의 60.4%로서 정숙성 인상의 대부분을 설명하였다.

인상요인의 내용은, 품위요인에는 '정숙한', '예의바른', '신중한', '품위있는', '고상한', '단정한'의 특성이 함께 도출되었으며, 외향성 요인에는 '개방적인', '외향적인', '충동적인', '대담한', '주의를 끄는', '야한'의 특성이 함께 묶였다.

이는 인간이 내부에 지닌 특성들간에는 상호연관성이 있으며,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시 특성들간의 상호연관성의 맥락에 따라서 평가하게 된다고 가정한 Bruner와 Taigiuri²⁾ 및 이러한 내적특성 평가에 개인의 외모가 함께 연관된다는 Kaiser³⁰⁾의 진술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색과 신체노출 정도를 달리하는 수트차림의 여자에 대한 정숙성 인상을 형성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지각자의 내현성격이론 체계는 품위요인과 외향성 요인으로 분리·구성되며, 지각자의 성·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상형성시 의복변인의 영향: 정숙성 인상의 2가지 요인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다리노출 변인은 모든 관찰자 집단에서 품위 및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주었다. 목노출 변인은 품위요인에 대해서는 3개 관찰자 집단에서 주효과를, 남·대학생 집단에서는 부분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 외향성 요인에는 주로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트의 색은 주로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때, 우리나라의 문화안에서는 세가지 의복변인 중 다리노출 정도가 정숙성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다리를 많이 노출하는 미니스커트는 정숙성이 중요시 되는 상황하에서는 착용자에 대한 비정숙하다는 인상을 이끌 수 있으므로 의복선택에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이는 자유응답 내용에서 신체노출이 많은 수트 차림에 대해 '시선 끌고자 함', '자기 과시'등의 평가가 나타났듯이 관찰자들은 의복착용을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고 착용자의 내적 특성을 추론하기 때문이다.

다리노출 단서가 정숙성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Stanford²³⁾의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이 다리노출을 가장 성적매력을 주는 요인으로서 지적했던 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Lewis와 Johnson¹⁵⁾의 최근 연구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원인 귀속시 피해자의 의복에 의한 영향이 미니스커트 차림과 스웨터·바지 차림 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리노출 변인이 정숙성 인상을 저하시켰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의복 정숙성 평가기준은 외국에 비해서 좀더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트의 색이 자극적인 빨간색과 신체살 두드러져 보이게 할 수 있는 검정색이었다는 점과 둘째, 지각자의 주의 과정과 관련하여 다리노출 단서의 특출성 즉, 미니스커트 조작에 의한 신체노출 부분이 크고, 단정한 수트스타일과 디자인상의 부조화를 나타냄으로서 다리노출 단서가 특출성을 갖게됨에 따라 자극단서 중 전경 (figure)으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수트의 색이 외향성 요인의 인상에 관련되고 의복착용자에 대한 자유응답 내용에서 검정색 수트가 '침울함', '엄숙함' 등으로 평가된 것은 색채에 주어진 의미가 의복에서도 상징적으로 표현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의복의 색은 의복 정숙성의 중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의복의 유형 또는 형태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Sweat과 Zentner⁹⁾의 연구에서 목을 길게 노출한 '극적인' 유형이 비인습적인 인상을 준 것과, Gibbins와 Coney¹²⁾의 연구에서 짧은 스커트와 목이 길게 파인 T-셔츠에 대해 외향적·성적매력 있음 등으로 평가된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Paek⁹⁾의 연구에서 신체노출이 조작된 약식복장이 '신뢰할 수 있음', '이해심 있음' 등의 인상을 주었고 Conner 등의 연구³¹⁾에서 사회적 느낌의 의복으로 조작되었던 짧은 원피스는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는 보수적인 의복에서의 신체노출은 비정숙하다는 인상을 이끌 수 있으나 다른 유형 즉, 약식복장에서는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의 판단기준으로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의복의 유형은 신체노출에 대한 인상 형성시 신체노출 변인에 부여된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맥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유행 의복의 착용은 착용자의 사회성을 반영함을 볼 때, 최근의 미니스커트의 유행경향에 따라 사회전반에 미니스커트의 착용이 보편화된다면 다리노출이 더이상 의복정숙성 평가기준으로 작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맥

락에서, 본 연구에서 다리노출 변인이 정숙성 인상에 큰 영향을 나타낸 것은 연구 당시 미니스커트가 유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인상형성시 관찰자의 성·연령의 영향: 착용자의 정숙성에 대한 인상형성시 관찰자에 따른 차이는, 연령별로 비교할 때 남자집단에서는 중년층이 대학생보다 영향을 좀더 받았으며 여자집단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성별차이는 대학생 집단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더 영향을 받았으나 40대에서는 남자가 더 영향을 받았다. 즉, 본 연구의 가정에 일치되는 결과는 남자집단에서의 연령별 차이 및 대학생 집단에서의 성별 차이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성별·연령별 의복정숙성 수용기준과 관련지어 논의하면, 남자대학생 집단이 중년층에 비해서 인상형성시 의복정숙성 조작변인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의복 정숙성에 대한 수용기준은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자집단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여대생 집단에서의 부정적 평가경향의 영향인 것으로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중년층 여자집단과 비교했을 때 정숙성 조작변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향은 유사하나, 품위요인에 대한 노출 변인의 영향은 작고 다리노출 변인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착용자에 대한 연상내용에서 미니스커트 차림에 대해 '디자인의 부조화'를 좀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대생 집단이 자신의 의복정숙성 태도에 의한 정숙성 평가기준보다는 자신과 동일한 연령층의 의복착용자의 의복에서의 유사하지 않음과 디자인의 부조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부정적 평가경향이 정숙성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년층 집단에서의 성별차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설정된 본 연구의 가정에 일치되지 않으며, 또한 중년층에서의 의복정숙성 태도에 대한 성별차이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복착용자에 대한 연상내용에 대한 논의: 의복착용자에 대한 관찰자의 자유응답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의복착용 모습에 대한 인상형성시 지각자 자신의 선택적 주의 또는 외모단서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지각자 특성이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즉, 동일한 자극물에 대해 긍정

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함께 나타난 것은 자극물을 통해 동시에 제시된 수트스타일 자체의 단정함, 신체노출, 색 중 관찰자에 따라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단서에 부여된 의미에 따라 의복착용자의 내적특성을 추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상내용에서 단순히 정숙성 관련특성 또는 평가(Evaluation) 차원에 관련된 특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의도 및 생활 태도 등에 관한 응답이 나타난 것은 인상형성시 관찰자에 따라 단순히 외모단서에 기초한 즉각적 판단에 그치거나, 의복착용을 의도적 행동으로 원인 귀속하여 대인지각 단계의 제 3 단계에서 부터 시작하여 인상을 형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지각자의 특성이 작용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에 따른 결과로서도 해석되어질 수 있다. 즉, 전형적인 인상형성 연구에서 지각대상자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형용사쌍을 순서적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다른 특성들을 추론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의복착용 모습을 통해 모든 단서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그로부터 내적특성을 추론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을 측정함에 있어 구조화된 설문내용과 함께 자유응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관찰자가 형성한 인상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VI.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실험의복으로서 실생활에서의 다양한 의복유형 중 수트만을 사용하였으며 정숙성 조작변인으로서 신체노출과 색을 포함하여 두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였다는 점과, 둘째, 피험자를 각 집단별로 96명씩 임의표집 하였으며 연령별 집단을 대학생과 청년층의 두 집단만을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의 전체적인 느낌에 따라 분류된 자극물을 사용하여 인상형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동일한 수트차림에서의 정숙성 변인만을 조작·연구함으로써 보수적인 의복에서의 정숙성 구성요인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관찰자가 형성한 인상의 원인이 되는 단서를 추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안에서의 의복 정숙성 기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연구변인으로서 몸매 드러냄과 같은 다양한 정숙성 구성요인을 포함하고 여러수준으로 변인을 조작하여 여러 구성요인간의 상대적 중요성의 파악과 동일한 변인내에서의 허용기준 파악이 요구된다.

둘째, 다양한 의복유형 즉 약식복장 또는 원피스 스타일등을 포함하고 또한 능력·활동성·사회성 등과 같은 인상차원에 대한 정숙성 구성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연령층의 피험자를 포함하여 연령에 따른 의복정숙성 기준에서의 변화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의복정숙성 평가시의 중개변인인 상황적 적절성, 착용자 이미지등의 변인을 포함하여 의복정숙성에 의한 인상형성시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Flu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N.Y.: International Univ, Press. (1950)
- 2) Schneider D.J., Hastorf, A. & Ellsworth, P.C., *Person Perception (2nd ed.)*, Addison-Wesley Pub. Co. (1979)
- 3) Asch, S.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 of Abn. Soc. Psy*, 41, 258-190. (1946)
- 4) Freedman, J.L., Sears, D.P. & Carlsmith, J.M., *Social Psychology (4th ed.)*, N.Y.: Prentice-Hall Inc. (1981)
- 5) Sears, D., Freedman, J.L., & Peplau, L.A., *Social Psychology (5th ed.)*,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1985)
- 6) 조궁호,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 8, 197-223. (1986)
- 7) Fiske, S.T. & Taylor, S.E., *Social Cognition*, Mass. Addison-Wesley Pub. Co. Inc. (1984)
- 8) Sweat, S.J., Zentner, A.N., *Female appearance presentation: Gender difference in social attribution and situational choice, Home Ec. Res. J.* 14(2), 175-186. (1985)
- 9) Paek, S.L., *Effect of garment style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 traits, Clo. & Tex. Res. J.* 5(1) 10-16 (1986)
- 10) Bell E.L.,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 & Tex. Res. J.* 10(1) 8-12. (1991)
- 11)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 12) Gibbins, K. & Coney, J.R.,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720-722. (1981)
- 13) Mathes, E.W. & Kempfer, S.B., Clothing as a nonverbal communicator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Perceptual and Motor Skills*, 43, 495-498. (1976)
- 14) Mazelan, P., Stereotypes and perceptions of the victims of rape,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5, 121-132, (1980) in, Lewis, L., & Johnson, K.P. (1989-90).
- 15) Lewis, L., & Johnson, K.P. (1989-90), Effect of dress, cosmetics, and causal inference on attribution of victim responsibility, *Clo. & Tex. Res. J.* 8(1) pp. 22-27. (1989-90)
- 16) 박기환 역, Noriyuki, Chimura. 부장의 색채, 서울, 유신문화사. (1977)
- 17) 김화중 역, Birren, F.,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1989)
- 18) Mahannah, L.,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1968), in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 19) Francis, S.K. & Evans, P.,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4, 383-390. (1987)
- 20) 강혜원, 고애란,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211-217. (1991)
- 21) Littrell, M.A. & Berger, E.A., Perceiver's occupation and client's grooming: Influence on person perception, *Clo. & Tex. Res. J.* 4(2) 48-55. (1985-86)
- 22) Miller, F.G., Feinberg, R.A., Davis, L.L., & Rowold, K.L.,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appearance, *Home Ec. Res. J.* 10(4) 381-390. (1982)
- 23) Stanford, D., The sex-appeal of women's clothing as evaluated by young adult women and 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 (1974)
- 24) 원미숙,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남·녀 대학생들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25) 이명희,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3)
- 26) 강혜원,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3), 1-11, (1979)
- 27) Drake, D., Clothing interests of young adult, middle aged, and elderly men, Master's Thesis, Virginia Tech. Univ.
- 28) Christiansen, K. & Kernaleguen, A. Orthodoxy and conservatism-modesty in clothing selection, *J. of Home Ec.* 63(4) 251-255. (1971)
- 29) 김광경, 1학년 여대생의 가치관과 의상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73)
- 30)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Y.: MacMillan Pub. Co. (1985)
- 31) Conner, B.H. Peters, K. & Nagasawa, R.H., Person and costume: Effect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 *Home Ec. Res. J.* 4(1) 32-41. (1979)